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김희순¹⁾ · 신영희²⁾ · 오가실³⁾ · 김태임⁴⁾ · 심미경⁵⁾

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5) 신성대학 간호과 조교수

= Abstract =

Parenting Stress,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Cues and Child Rearing Environment of First-time Mothers

Kim, Hee-Soon¹⁾ · Shin, Yeong-Hee²⁾ · Oh, Ka-Sil¹⁾ · Kim, Tae-Im³⁾ · Sim, Mi-Kyung⁴⁾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3)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4)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 among the parenting stress,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cues, parenting environment of first-time mother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94 first-time mothers of babies aged 1-6 months who visited well-baby clinics in 5 hospital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5 to June 15, 2003. **Results:** The parenting stress level was moderate with a mean score of 2.4(range 1-5). The parent domai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domain of the parenting stress scal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feeding cues ($r=-.178, p<.05$; $r=-.197, p<.01$). Parenting stres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hildrearing environment($r=-2.19, p<.01$). Parenting stress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mothers and their prenatal care. **Conclusions:** Nursing interventions to reduce parenting stress in first-time mothers are needed to improve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cues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which foster infant development.

Key words : Parenting stress, Maternal sensitivity to infant cues, Child rearing environment, First-time mothers

주요어 :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초산모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KRF-2002-042-E0008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김희순(E-mail: khssoon@yumc.yonsei.ac.kr)

투고일: 2005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2005년 9월 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ee-Soon(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4 E-mail: khssoon@yumc.yonsei.ac.kr

서론

연구의 필요성

출산 후 어머니들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며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 역할은 신생아 출산과 더불어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 많은 어머니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배움을 어려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책임부과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양육경험이 없는 초산모의 경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어머니 역할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cer, 1985). 초산모의 경우, 처음으로 아이와의 정서적 관계를 확립하고, 어머니가 되기 이전에 수행해 왔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통합하기 위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부담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양육의 책임만이 아니라 집안일의 증가, 재정적 부담의 증가, 여가시간의 감소 등과 같은 수많은 생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숙, 1987; Brooten et al., 1988).

어머니의 새로운 역할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은 자녀에게 보살핌의 결핍과 부적절한 모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elsky, Rovine & Taylor, 1984). 특히 우리나라 초산모의 경우 아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리, 부모역할 및 훈육에 대한 인식과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낮아 아기의 신호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원만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임혜경, 1998). 이러한 상황은 영아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장애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성격발달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출산 후 초기 부모역할에의 적응은 어머니 자신 뿐만 아니라 영아의 발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된다.

영아의 행동은 매우 단순하고 비슷하며 환경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자극에 선별적으로 반응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나간다. 영아는 신호(cue)와 암시라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신호란 영아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그들의 돌봄 제공자인 엄마와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비언어적 행동인 자세, 표정, 몸짓을 의미한다. 이런 영아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적절하게 영아에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모아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어머니가 영아의 암시, 신호에 반응하고 또한 영아는 어머니에게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모아상호작용은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주고 영아의 능력에 적절한 환경의 제공을 통해 영아

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권인수, 1992). 그러나 처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영아의 신호에 대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아상호작용은 중단되며 이런 부정적인 모아상호작용은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Golas & Parks, 1989). 어머니의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이란 영아의 신호를 어머니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여 영아에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이런 영아신호를 읽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어머니의 능력은 아동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후기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Oehler, Hannan & Cattlett, 1993) 영아 돌보기 활동 수행에 가장 중요하며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고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초산모는 영아신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영아의 요구를 예측하고 상호작용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권인수(1992)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을 때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한편, 양육환경이란 영아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태도나 가정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 부모에 의해 조성되는 초기 양육환경은 영아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ertzman & Weins, 1996; Waber & McCormick, 1995). Bee 등(1982)은 4개월과 12개월의 모아상호작용과 양육환경의 질이 24, 36개월의 IQ 및 언어발달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라고 하였으며 환경자, 권미경, 방경숙 및 김정수(2002)는 생후 6개월의 모아상호작용 및 양육환경은 생후 12개월의 영아발달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육을 처음 경험하는 초산모가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서적이고 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며 영아의 행동에 대해 수용하고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는 힘들다.

부모의 역할은 영아의 신호에 반응하고 영아가 보낼 때 달래고 영아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고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정도나 관련요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및 영아신호, 양육환경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시행되었으나 양육스트레스가 선행변수가 되어 다른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개발과 영아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환경 정도를 확인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환경의 차이를 확인한다.
-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환경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1개 병원, 대전 소재 1개 병원, 대구 소재 1개 병원, 전주 소재 1개 병원을 임의 선정하여 예방접종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초산모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5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서울 소재 병원에서 50명, 대전 소재 병원에서 53명, 대구 지역 병원에서 56명, 전주 지역 병원에서 46명의 총 205명의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한 자료 12부를 제외한 19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

•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사용하였다. PSI는 부모-자녀 체계의 역기능적인 측면이나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을 밝히고자 개발한 부모용 자가보고식 질문지로 국내 여러 선행 연구(유일영, 이경자 및 채선미, 1998; 유일영과 김동희, 2004)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도구이다. 이 도구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그 근원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 '부모-자녀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부모 영역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 12문항, 아동영역 스트레스 11문항의 총 35문항이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1이었다.

•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Barnard(1978)의 수유시 모아상호작용척도(NCAFS: Nursing Child Assessment Feeding scale)를 근간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자가보고형으로 수정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NCAFS는 모아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머니 측면과 아기 측면의 모아상호작용으로 구분되는데 (1) 어머니의 영아 신호에 대한 민감성 (2) 아기의 불편감에 대한 반응 (3) 사회-정서적 성장 촉진 행위 (4) 인지적 성장 촉진 행위 (5) 영아 신호의 명확성 (6)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반응의 6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어머니의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영역을 번역하여 '상호작용을 원하는 신호'(10문항)와 '상호작용의 중단을 원하는 신호'(23문항), '배고픔신호'(11문항)와 '포만감신호'(6문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예, 아니오의 이분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결과 해석은 응답한 '예'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문가의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아동간호학 교수 2인과 신생아 행동 평가와 모아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적 자격을 갖춘 아동 발달 전문가 2인으로 부터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어휘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였다.

• 가정양육환경

가정양육환경은 Bradley와 Caldwell(1984)에 의해 개발된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Inventory(HOME)를 자가보고식으로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OME는 1984년에 개정판이 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영(1985)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가정환경 자극검사(0-3세용)라고 하였다. HOME은 0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에게 가정에서의 환경적 변수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아동에게 제공 가능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지지의 질과 양을 직접 가정에서 관찰하는 도구로 '부모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아동의 행동에 대한 수용', '물리적 환경과 시간의 조직화', '적절한 장난감의 제공', '부모의 참여도',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자극의 제공', 등 6개 영역의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영아 연령이 6개월 이하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수용성', '적절한 장난감의 제공', 두 영역을 제외한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발달에 바람직한 양육환경임을 의미한다. 전문가의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아동간호학 교수 3인과 아동 발달 전문가 2인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3이었다.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였으며 자료수집자는 아동 분야의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학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생 4명으로 각 병원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면접법과 자가보고식 설문지로 직접 응답하게 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환경은 각 영역의 점수와 전체 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영역별 평균과 전체평균을 구하였다.

-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문항별 정답률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영역별 평균과 전체평균은 정답유무에 따라 점수화하여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구하였다.
-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기의 월령은 3-4개월이 67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초산모의 나이는 26-35세 사이가 164명(84.5%)이었다. 교육정도는 대학졸업이 110명(56.7%), 고등학교 졸업이 69명(35.6%)이었다. 초산모 가족의 월 수입은 1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미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실수(명)	백분율(%)	평균
어머니 연령	25세 이하	26	12.4	28.86
	26-35세	164	84.5	
	36세 이상	6	3.1	
아기 연령(월령)	1-2개월	62	32.0	3.66
	3-4개월	67	34.5	
	5-6개월	65	33.5	
교육정도	중졸	5	2.6	
	고졸	69	35.6	
	대졸	110	56.7	
	대졸이상	10	5.2	
월수입	100만원 미만	15	7.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0	57.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3	27.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	5.8	
	400만원 이상	2	1.0	
가족형태	부부만 산다	149	76.8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	27	13.9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산다	12	6.2	
	다른 친척과 같이 산다	6	3.1	
직업	전업주부	117	60.3	
	사무직	18	9.3	
	전문직	42	21.6	
	일용직	2	1.0	
	기타	15	7.7	
임신계획	예	109	56.5	
	아니오	84	43.5	
임신 중 관리	예	114	60.0	
	아니오	76	40.0	
임신 중 관리내용 (중복응답)	영양관리	81	41.8	
	수면관리	66	34.0	
	운동관리	81	41.8	
	정서관리	85	43.8	
	성생활관리	55	28.4	
	기타관리	16	8.2	

만이 110명(57.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이 53명(27.7%)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149명(76.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초산모의 직업은 없는 사람(전업주부)이 117명(60.3%)이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이 77명(39.7%)이었다. 초산모의 109명(56.5%)이 계획된 임신을 하였고 84명(43.5%)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다. 초산모의 114명(60.0%)이 임신기간 중에 태아의 건강과 발육을 위해 특별히 조심하거나 관리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리내용으로는 정서관리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영양관리, 운동관리, 수면관리, 성생활관리, 기타 순의 빈도를 보였다<표 1>.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양육스트레스는 최고 평점 5점 중 총 평점 2.4점을 보였고 영역별로 구분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부모영역에서는 평균 2.8점, 부모자녀관계 영역에서는 평균 2.0점, 아동영역에서는 2.6점을 나타내었다<표 2>. 양육스트레스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이 아이를 가진 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3.59점),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3.55점)로 모두 부모영역의 문항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초산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적게 했는데 양육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상황에 대해 기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부모영역의 양육스트레스	2.77	0.70
내가 일 처리를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2.54	0.94
아이 때문에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산다	3.27	1.14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얽매어 있다	3.46	1.13
이 아이를 가진 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	3.59	1.10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3.55	1.14
최근에 산 옷이 마음에 안 든다	2.50	1.07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다	2.81	1.08
이 아이를 가진 뒤로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많다	1.99	1.01
외롭고 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2.38	1.11
각종 모임에 참석해도 재미가 없다	2.30	1.08
예전과는 달리 주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2.53	1.13
예전과는 달리 세상 일이 재미없다	2.25	1.02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양육스트레스	1.95	0.55
우리 아이가 하는 짓을 보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다	1.38	0.63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1.40	0.70
아이는 기대하는 것보다 내게 잘 웃지 않는다	1.59	0.83
아이에게 잘해 주어도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1.60	0.80
우리 아이는 나와 놀 때 웃는 일이 드물다	1.60	0.80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늦는 것 같다	2.11	1.06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잘 웃지 않는다	1.75	0.87
우리 아이는 기대만큼 잘 하지 못한다	1.87	0.90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한다	2.16	0.98
나는 아이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서 괴롭다	2.73	1.25
우리 아이는 성가신 일을 많이 저지른다	2.69	1.14
나는 나 자신이 정말 좋은 부모가 못된다고 생각한다	2.50	0.98
아동영역의 양육스트레스	2.56	0.6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자주 울고 보챈다	2.37	1.03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운다	2.30	1.19
우리 아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한다	2.37	0.98
우리 아이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을 좀 한다	2.83	1.10
우리 아이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심하게 반응한다	3.15	1.11
우리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잘 운다	2.67	1.09
우리 아이에게 먹이고 재우는 것을 규칙적으로 습관들이기가 힘들다	2.85	1.20
우리 아이에게 걱정되는 일이 있다	2.64	1.12
우리 아이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	2.09	0.94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한다	3.15	1.20
전체	2.38	0.51

- 자고 싶을 때 자지 못하고 아기는 일방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므로 그 때마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을 조절하기가 힘들다.
- 맞벌이 부부이므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어서 아이의 지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맞벌이로 직장에 나가는 동안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할 지 고민이다.
- 개인시간이 없다(개인생활을 못한다. 여가생활을 하지 못한다. 아기가 생긴 이후 외출하기가 어려워졌다).
- 밤에 아기가 잠을 자지 않거나 갑자기 아플 때 어렵다.
- 아기가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고 보챌 때, 이유없이 울고 보챌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잘 먹지 않을 때 힘들다
- 수유하기가 어렵다, 수유 후 트림시키기가 어렵다, 수유 후 자주 토한다, 조금씩 자주 먹는다.
- 아기가 표현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 아기 중심으로 생활 방식과 환경이 모두 바뀌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증가되므로 어렵다.
- 아이 양육 시 남편이나 시댁, 외가 식구들과의 의견충돌로 어렵다(예: 시부모님의 양육 스타일이 맘에 들지 않음).
- 아기가 변덕스럽고 기분이 쉽게 변할 때 아기를 다루기 어렵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 수유신호에 대한 민감성

전체 17문항 중에 평균 정답율은 11.3문항으로, 영아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수유신호가 상호작용 신호에 비해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50% 미만의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3항목으로 '아기가 주먹을 꼭 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다'(12.0%), '아기가 팔 다리를 꼭 오므리고 있다'(14.8%), '아기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린다'(49.5%)의 배고픔 신호에 대해 오답이 많았다.

• 상호작용 신호에 대한 민감성

놀이시 아기가 보내는 신호로 구성된 33문항 중에 평균 정답율은 11.3문항으로, 영아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신호와 상호작용 중단을 원하는 신호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답율을 보였으며 50% 미만의 정답율을 보인 항목이 26문항이었다. 특히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상호작용의 중단을 원하는 신호로 '아기가 손을 벌려 나를 향해 팔을 뻗는다'(3.1%)였으며 그 외 10% 미만의 저조한 정답율을 보인 항목들은 '아기가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7.3%), '아기가 갑자기 딸꾹질을 한다'(5.8%), '아기가 손을 입으로 가져간다'(7.8%), '아기의 손이 귀로 간다'(8.4%)였다.

가정양육환경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최고 11점 중 평균 9.1점, 환경조직은 최고 6점 중 평균 3.7점, 어머니의 참여도는 최고 6점 중 평균 4.5점,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은 최고 5점 중 평균 3.4점이었다<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는 임신관리를 안한 집단이 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아동영역 스트레스($t=-2.04, p<.05$)와 부모자녀관계 영역 스트레스($t=-2.82, p<.01$)를 보였다. 또한 고졸이하의 초산모가 대졸이상의 초산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t=2.73, p<.01$)와 부모영역 스트레스($t=3.75, p<.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산모의 연령, 계획된 임신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3-4개월 영아에서, 핵가족인 경우보다 확대가족인 경우와 직업을 가진 어머니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다<표 4>.

일반적 특성과 영아 상호작용신호 및 수유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초산모가 수유신호에 대한 정답율이 더 높았으며($t=-2.083, p<.05$) 다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환경의 차이는 교육수준($t=-2.11,$

<표 3> 가정양육환경 정도

구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판정기준		
			하위	중간	상위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11	9.12±1.78	0-6	7-9	10-11
환경조직	6	3.70±1.39	0-3	4-5	6
어머니의 참여도	6	4.48±1.27	0-2	3-4	5- 6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5	3.43±1.24	0-1	2-3	4- 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

특성	구분	양육스트레스(M±SD)				신호에 대한 민감성(M±SD)		
		부모	관계	아동	전체	상호작용	수유	전체
어머니연령	25세 이하	37.11(8.68)	23.47(5.19)	25.53(4.31)	84.63(13.68)	11.00(3.92)	9.78(3.95)	20.78(6.72)
	26-35세	32.82(8.32)	23.45(6.77)	28.56(7.37)	83.31(18.24)	11.58(6.40)	11.27(3.53)	22.62(8.84)
	36세 이상	30.60(4.82)	21.66(5.68)	26.66(11.59)	77.33(17.92)	10.00(3.62)	12.60(2.96)	23.50(11.21)
		F=2.493 p=.086	F=.108 p=.898	F=1.569 p=.211	F=.221 p=.802	F=.185 p=.831	F=1.879 p=.156	F=.403 p=.669
아기연령	1-2개월	32.54(8.43)	23.47(5.23)	27.70(6.55)	82.45(15.78)	12.11(6.82)	11.78(3.21)	23.60(9.07)
	3-4개월	33.80(8.07)	23.45(5.67)	28.62(7.09)	84.27(17.07)	10.93(6.12)	10.98(3.80)	21.83(8.57)
	5-6개월	33.29(8.51)	23.30(7.32)	27.66(8.13)	82.85(19.52)	11.72(5.95)	10.85(3.65)	22.36(8.48)
		F=.285 p=.752	F=.012 p=.989	F=.284 p=.753	F=.148 p=.863	F=.426 p=.654	F=.959 p=.386	F=.481 p=.619
교육수준	고졸이하	36.40(7.19)	24.68(7.09)	28.67(7.46)	88.46(16.72)	12.19(6.42)	10.37(4.08)	22.50(9.58)
	대졸이상	31.51(8.49)	22.72(6.18)	27.89(7.05)	80.61(17.65)	11.03(6.07)	11.57(3.22)	22.36(8.05)
		t=3.746 p=.000***	t=1.845 p=.067	t=.660 p=.510	t=2.731 p=.007**	t=1.117 p=.266	t=-2.083 p=.039*	t=.092 p=.927
월수입	200만원미만	34.07(8.05)	23.93(7.04)	28.15(7.32)	84.57(18.02)	11.96(6.37)	10.95(3.64)	22.83(8.92)
	200만원이상	31.50(8.96)	22.34(5.39)	28.18(6.90)	80.62(17.13)	10.48(5.74)	11.71(3.35)	21.85(7.72)
		t=1.837 p=.068	t=1.427 p=.156	t=.030 p=.976	t=1.285 p=.201	t=1.317 p=.190	t=-1.266 p=.207	t=.625 p=.533
가족형태	핵가족	33.02(7.99)	23.23(6.64)	27.64(7.19)	82.48(17.44)	11.78(6.33)	11.21(3.58)	22.82(8.80)
	확대가족	34.08(9.76)	24.08(6.32)	30.08(6.92)	86.61(18.45)	10.35(5.70)	10.89(3.63)	21.02(8.00)
		t=-.667 p=.506	t=-.686 p=.493	t=-1.789 p=.075	t=-1.211 p=.228	t=1.189 p=.236	t=.487 p=.627	t=1.067 p=.288
직업	무	34.01(8.28)	24.15(6.85)	28.63(7.49)	85.38(18.64)	12.19(6.39)	11.12(3.69)	23.05(9.07)
	유	32.13(8.43)	22.36(6.01)	27.50(6.72)	80.48(15.92)	10.49(5.86)	11.18(3.45)	21.51(7.96)
		t=1.428 p=.155	t=1.731 p=.085	t=.985 p=.326	t=1.735 p=.085	t=1.683 p=.094	t=-.106 p=.916	t=1.075 p=.284
임신계획	유	33.30(8.50)	23.43(6.28)	28.37(7.31)	83.78(18.08)	11.39(6.64)	11.25(3.58)	22.48(8.98)
	무	33.08(8.27)	23.40(7.04)	27.78(7.06)	82.57(17.30)	11.55(5.65)	10.95(3.62)	22.25(8.24)
		t=.160 p=.873	t=.029 p=.977	t=.509 p=.611	t=.421 p=.674	t=-.153 p=.879	t=.520 p=.604	t=.159 p=.874
임신관리	예	32.97(8.71)	22.30(6.42)	27.32(7.60)	81.48(18.05)	11.42(5.80)	11.33(3.43)	22.46(7.96)
	아니오	33.80(7.81)	25.21(6.48)	29.56(6.25)	86.60(16.50)	11.51(6.83)	10.77(3.85)	22.29(9.59)
		t=-.622 p=.535	t=-2.821 p=.005**	t=-1.966 p=.051	t=-2.04 p=.043*	t=-.086 p=.931	t=.971 p=.333	t=.121 p=.904

* p<.05 ** p<.01

p<.05)과 임신관리 유무(t=2.21, p<.05)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양육환경의 차이를 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영역에서는 학력수준이 대졸이상일 때 고졸이하보다 유의하게 안정된 것으로(t=-2.76, p<.05) 나타났고 환경의 조직화 영역은 임신계획을 했을 때가 안했던 경우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정된 것으로(t=3.18, p<.01) 나타났다. 어머니의 참여도 영역은 아기의 월령이 3-4개월일 때 (F=3.91, p<.0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환경의 차이

특성	구분	양육환경(M±SD)				
		반응성	조직화	참여도	다양성	전체
어머니연령	25세 이하	9.00(1.59)	3.52(1.54)	4.57(0.83)	3.05(1.43)	20.15(3.32)
	26-35세	9.15(1.74)	3.74(1.32)	4.65(1.08)	3.56(1.18)	21.13(3.89)
	36세 이상	10.00(1.00)	3.00(2.00)	3.75(2.63)	2.75(2.21)	22.66(1.52)
		F=.438 p=.646	F=.751 p=.473	F=1.308 p=.273	F=2.109 p=.125	F=.820 p=.442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환경의 차이(계속)

특성	구분	양육환경(M±SD)				
		반응성	조직화	참여도	다양성	전체
아기연령	1-2개월	9.23(1.65)	3.36(1.28)	4.76(1.18)	3.54(1.31)	21.17(3.52)
	3-4개월	9.33(1.67)	3.71(1.32)	4.81(0.89)	3.43(1.23)	21.40(3.68)
	5-6개월	8.98(1.76)	3.91(1.49)	4.27(1.20)	3.41(1.17)	20.50(4.10)
		F=.615 p=.542	F=1.975 p=.142	F=3.912 p=.022*	F=.161 p=.851	F=.742 p=.478
교육수준	고졸이하	8.68(1.82)	3.54(1.38)	4.21(1.06)	3.33(1.32)	20.19(4.21)
	대졸이상	9.40(1.63)	3.79(1.35)	4.64(1.12)	3.48(1.20)	21.53(3.47)
		t=-2.76 p=	t=-.557 p=.578	t=-1.489 p=.139	t=-.835 p=.405	t=-2.112 p=.036*
월수입	200만원미만	8.99(1.73)	3.75(1.36)	4.52(1.15)	3.43(1.29)	20.81(3.88)
	200만원이상	9.34(1.66)	3.54(1.35)	4.82(1.00)	3.54(1.14)	21.46(3.52)
		t=-1.443 p=.151	t=.907 p=.366	t=-1.573 p=.118	t=-.477 p=.634	t=-.952 p=.342
가족형태	핵가족	9.17(1.62)	3.65(1.39)	4.45(1.09)	3.41(1.32)	21.12(3.94)
	확대가족	8.97(2.01)	3.86(1.24)	4.55(1.16)	3.47(0.93)	20.73(3.32)
		t=.935 p=.351	t=-.794 p=.428	t=-.040 p=.968	t=-.551 p=.583	t=.528 p=.598
직업	무	9.04(1.83)	3.82(1.33)	4.71(1.16)	3.52(1.29)	21.12(4.14)
	유	9.30(1.52)	3.53(1.39)	4.55(1.02)	3.42(1.18)	20.92(3.30)
		t=-.986 p=.326	t=1.321 p=.188	t=-.906 p=.366	t=.475 p=.635	t=.324 p=.746
임신계획	유	9.14(1.69)	3.97(1.24)	4.68(1.08)	3.62(1.15)	21.46(3.71)
	무	9.15(1.77)	3.30(1.45)	4.52(1.13)	3.24(1.34)	20.38(3.87)
		t=-.032 p=.975	t=3.181 p=.002**	t=.899 p=.370	t=1.956 p=.052	t=1.728 p=.086
임신관리	예	9.32(1.54)	3.73(1.38)	4.70(1.08)	3.54(1.20)	21.58
	아니오	8.84(1.93)	3.63(1.36)	4.46(1.14)	3.35(1.32)	20.20*
		t=1.732 p=.085	t=.492 p=.624	t=1.345 p=0.180	t=.931 p=.353	t=2.209 p=.029*

* p<.05 ** p<.01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간의 상관관계

부모영역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수유신호를 잘 인지하고 있었고($r=-.178, p<.05$),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유신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r=-.197, p<.01$)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과의 상관관계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
양육스트레스	.033	-.219**
부모영역 스트레스	.015	-.171*
부모자녀관계 스트레스	.011	-.279**
아동영역 스트레스	.079	-.085

* p <.05 ** p <.01 *** p <.001

<표 7>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

하위 영역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양육환경			
	부모영역 스트레스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아동영역 스트레스	수유신호	상호작용신호	부모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환경과 시간의 조직화	부모의 참여도	자극의 다양성
부모영역	1.000	.543**	.420**	-.178*	.121	-.182*	-.082	-.013	-.087
부모자녀관계	.543**	1.000	.547**	-.197**	.093	-.386***	-.055	-.132	-.137
아동영역	.420**	.547**	1.000	-.016	.093	-.224**	-.046	-.026	-.017

* p <.05 ** p <.01 *** p <.001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9, p<.01$).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양육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171, p<.05$),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r=-.279, p<.01$)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양육환경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부모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은 전체 스트레스와 영역별 스트레스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표 7>.

논 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최고 평점 5점 중 총 평점 2.4점을 보였고 이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 유일영과 김동희(2004)의 양육스트레스 평점 2.2나 유일영, 이경자 및 채선미(1998)의 평점 2.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6개월 이하의 영아여서 특히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양육스트레스 영역별 스트레스 점수에서 부모영역의 스트레스 평점이 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 전체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이 모두 부모영역에서 나타난 것은 박영숙(1991), 조규영, 김영선, 어용숙, 박형숙 및 전성숙(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모의 스트레스원이 확인되었고 그 중 어머니 자신의 성취 및 발전의 저하에 따른 부모 영역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부모 영역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 역할은 출산 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인지적 과정이므로 아기 양육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 특성에서 핵가족 부부가 76.8%, 직장을 가진 초산모의 비율이 40%인 점에서 이런 핵가족 부부와 직업을 가진 어머니를 위한 아기 양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대상자의 98%가 고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40%의 대상자가 임신 기간 중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보고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영아신호 중 '아기가 주먹을 꼭 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다'는 정답율이 12.0%, '아기가 팔 다리를 꼭 오므리고 있다'는 정답율이 14.8%로 배고픔 신호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권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젖을 먹을 때 아기 손이 꼭 쥐어져 있다'가 정답율 11.1%였고 54.9%가 아기

들은 언제나 손을 꼭 쥐고 있는 편이라고 해석하여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적절하게 한 경우가 낮아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모아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경우가 수유 상황이므로 이 때 어머니가 자신의 영아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민감성을 보이게 되면 어머니와 영아 사이의 상호성은 증진되고 상호작용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수유 상황에서 영아의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에 적절한 민감성을 보인다면 강제로 수유를 하거나 배고픈 상황에서 수유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다.

영아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신호와 상호작용을 원하지 않는 신호에 대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답율을 보였으며 특히 가장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은 상호작용 중단 신호로 '아기가 손을 벌려 나를 향해 팔을 뻗는다'(3.1%)였으며 그 외 '아기가 갑자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7.3%), "하품을 한다(29.5%) '아기가 갑자기 딸꾹질을 한다'(5.8%) 등이 낮은 정답율을 보였다. 권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하품을 한다'에 대해서 아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졸립다고 해석한 경우가 42.4%, 어머니에게 안기고 싶은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경우가 25%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하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비협응신호에 대해 어머니들이 적절한 민감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을 원하는 신호인 '아기가 나를 보고 미소짓는다'는 정답율이 45.0%,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47.4%의 낮은 정답율을 보였는데 권미경(1997)의 연구에서는 '미소를 짓는다'에 대해서 56.9%가 영아가 기분이 좋은 것으로 25.7%는 배냇짓이라고 해석하였으며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는 58.3%가 단순히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여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기 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지 않았고 아기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어머니의 능력이 모아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고 볼 때 아기의 신호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원만한 모아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모아상호작용의 주된 기능은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므로(김태임, 1991) 처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영아의 행동적 반응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부모는 좌절을 겪게 되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결핍을 가져오며 최악의 경우 성장실패와 같은 영아의 심리 병리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Golas & Parks, 1989). 어머니의 아기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아기의 행동 신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므로 건강전문인은 부모에게 영아의 능력과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를 돕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양육을 처음 경험하는 초산모에게는 영아의 행동 반응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영아신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영아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반응하도록 어머니를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아의 최적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육환경

영역별 양육환경 점수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평균 9.12점으로 중간 점수를 보여 한경자 등(2002)의 연구에서 평균 10.13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것보다 낮았다. Bradley와 Caldwell(1988)은 HOME의 세부 영역마다 전체 대상자의 25% 이하를 낮은 점수, 25%에서 75% 사이를 중간 점수, 75% 이상을 높은 점수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점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5>. 환경조작은 평균 3.70으로 역시 중간 점수에 속하여 한경자 등(2002)의 평균 4.31점, 방경숙(2001)의 평균 4.28보다 낮았다. 어머니의 참여도는 평균 4.48로 높은 점수에 속하였고 자극의 다양성은 평균 3.43점으로 한경자 등(2002)의 평균 4.13보다 낮았다. 어머니의 참여도 영역을 제외한 세 가지 영역 모두가 중간 점수로 나와 영아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정환경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arnard(1984)는 2세 이전에 행해진 유아의 정신발달 측정보다 전체 양육환경 점수가 이후의 정신발달과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하였고 Schraeder(1986)의 연구에서도 생후 6개월에 측정한 양육환경 점수가 12개월의 발달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Benasich와 Brooks-Gunn(1996)는 12개월의 양육환경은 36개월의 IQ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밝히고 있다. 한경자 등(2002)의 연구에서도 6개월의 양육환경은 생후 12개월의 영아발달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하여 타고난 정신능력보다 환경에 의한 영향이 아동의 발달에 더 많이 작용하는 요소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영아기에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에서 교육 정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문영임과 구현영(1999)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어머니가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한 것,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획득이 높다고 한 연구(이은숙, 1988)와 일치하는 결과로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하겠다.

양육환경은 임신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났고 임신관리를 잘 했다는 것은 아동의 건강과 양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로서 출생 후에도 발달촉진환경으로서의 양육환경을 잘 조성한다고 볼 수 있겠다. 양육환경은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났으므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사정하고 양육환경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초산모가 수유신호에 대한 정답율이 높게 나타났고 상호작용신호는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신호는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고 수유신호는 경험적, 문화적, 교육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 양육환경과의 관계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과의 관계에서 부모 영역과 부모자녀관계 영역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수유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정답율이 높게 나타났고 아기의 기질과 관계있는 아동영역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신호는 배우지 않고도 파악이 가능해 정답율이 높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반면, 상호작용신호는 수유신호에 비해 학습에 의해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많아, 스트레스가 낮다고 상호작용신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와 가정양육환경과의 관계에서 특히 부모 영역과 부모자녀 관계 영역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영역의 양육환경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아기가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면 말로서 반응하고 아이에게 다정히 이야기하고 어루만지는 등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모아상호작용의 기본 요소로 아동의 기질이 순하고 까다로운 것과 관계없이 부모 영역과 아동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낮아야 모아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초산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와 내용이 확인되었고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양육환경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모아상호작용의 증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생 초기 불안정한 애착과 해로운 환경은 학습불능, 감정적 장애, 행동장애를 낳고 아동에게 심각한 건강문제의 원인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자녀와의

관계형성과 반응적 돌봄, 잘 조직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사는 양육스트레스의 부담감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개발과 보완, 정책개선의 여러 측면에서 간호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초산모는 영아신호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영아의 행동에 대한 수용과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 안정적인 양육환경 제공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간호중재 개발과 영아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의 5개 병원에 예방접종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내원한 6개월 이하의 영아를 가진 194명의 초산모였다. 연구도구는 양육스트레스 도구, 수유 시 모아상호작용척도, 가정양육환경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 t-test와 ANOVA,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양육스트레스는 최고 평점 5점 중 2.4점을 보였고 부모 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서 상호작용신호는 33 문항 중 평균 정답율이 11.3문항으로 영아의 상호작용을 원하는 신호와 상호작용 중단을 원하는 신호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정답율을 보였다. 수유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17문항 중 평균 정답율이 11.3문항으로 상호작용 신호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답율을 보였다.
- 가정양육환경은 어머니의 참여도 영역을 제외한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환경조직, 자극의 다양성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중간 점수를 보였다.
- 양육스트레스는 임신관리 유무,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은 초산모가 수유 신호에 대한 정답율이 더 높았다. 양육환경은 교육수준과 임신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과의 관계에서 부모 영역과 부모자녀 관계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수유신호에 대한 정답율이 낮았다($r=-.178, p<.05$; $r=-.197, p<.01$).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환경과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9, p<.01$)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 영역의 양육환경 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산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

니의 민감성과 양육환경의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초산모의 스트레스 증재를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영아신호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모아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영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체계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 또는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높이는 교육과 초기 영아기에 바람직한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초산모에 대해 양육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효과를 보는 실험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 양육환경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권미경 (1997). 영아신호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에 대한 조사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2), 117-130.
- 권인수 (1992). 정상아와 고위험 출산아의 모아상호작용 양상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영임, 구현영 (1999). 미숙아 어머니의 부모 역할 스트레스와 신생아 지각. *대한간호학회지*, 29(1), 174-182.
- 박영숙 (1991). 초산모의 모성전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경숙 (2001).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1), 96-107.
- 유일영, 김동희 (2004). 아토피 피부염 환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간호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23-430.
-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 (1998). 탁아방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직업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 159-169.
- 이영 (1985). 0-3세용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연세논총*, 21, 379-397.
- 이은숙 (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 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혜경 (1998). 신생아 발달사정 시범이 초산모의 모아상호작

- 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규영, 김영선, 어용숙, 박형숙, 전성숙 (2004). 영아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임신의도와의 관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7(1), 17-26.
- 한경자, 권미경, 방경숙, 김정수 (2002). 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모역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부모자녀건강학회지*, 5(2), 129-144.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Manual*.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nard, K. E. (1978). The Nursing Child Satellite Training Series,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 Bee, H. L., Barnard, K. E., Eyres, S. J., Gray, C. A., Hammond, M. A., Spietz, A. L., Synder, C., & Clark, B. (1982). Prediction of IQ and Language Skill from Perinatal Status, Child Performance, Family Characteristics,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 53, 1134-1156.
- Belsky, J., Rovine, M., & Taylor, D. C. (1984). The Pennsylvania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II: The Origin of Individual Difference in Infant-Mother Attachment; Maternal and Infant Contributions. *Child Dev*, 55, 718-728.
- Benasich, A. A., &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 67(3), 1186-1205.
- Bradley, R. H., & Caldwell, B. M. (1988). Using the HOME Inventory to Assess the Family Environment. *Pediatr Nurs*, 14(2), 97-102.
- Brooten, D., Gennaro, S., Brown, L. P., Gibbon, A. L., Bakewell-Sachs, S., & Kumar, S. P. (1988). Anxiety, Depression and Hostility in Mother of Preterm Infants. *Nurs Res*, 37(4), 213-216.
- Golas, G. A., & Parks, P. (1989). Effect of Early Postpartum Teaching on Primiparas' Knowledge of Infant Behavior and Degree of Confidence. *Res Nurs Health*, 9, 209-214.
- Hertzman, C., & Weins, M. (1996). Child Development and Long-term Outcomes: A Population Health Perspective and Summary of Successful Interventions. *Soc Sci Med*, 43(7), 1083-1095.
- Mercer, R. T. (1981).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Factors that Impact on the Maternal Role. *Nurs Res*, 30(2), 73-77.
- Oehler, J. M., Hannan, T., & Catlett, A. (1993). Maternal Views of Preterm Infants' Responsiveness to Social Interaction, *Neonatal Netw*, 12(6), 67-75.
- Schraeder, B. D. (1986). Developmental Progress in Very Low Birth Weight Infants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Nurs Res*, 35(4), 237-242.
- Waber, D. P., & McCormick, M. C. (1995). Late Neuropsychological Outcomes in Preterm Infants of Normal IQ: Selective Vulnerability of Visual System. *J Pediatr Psychol*, 20, 721-735.